

“동백나무로 고향 구례 ‘백 년 먹거리’ 만들겠다”



2021 으뜸인재 <12> 순천대 석사과정 정범석씨

휴양림 조성·식재료·미용·의약품 등 6차 산업화 연구 매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사업 감독·신안 섬숲 생태복원 등 수행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 막막했는데, 매년 제가 목표한 것들을 하나씩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 꿈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고향인 구례가 미래 몇 백년 이상 계속 될 수 있는 특화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석사과정(산림휴양학 전공)에 재학중인 정범석(35)씨. 고향 구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상경해 전문대에서 전기시스템을 배웠다. 이후 도장설비 회사에 취직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기술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영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다시 4년제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했다.
“8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고향에 내려가 6차

산업(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의 융복합 개념)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스템, 영업, 경영 등을 배우고 나니 고향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도 생겼고요. 수많은 소재 가운데 동백나무를 6차 산업의 원재료로 삼아볼 계획입니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 정원호(66)씨의 모교인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뒤 지역 동백나무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한계선의 위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구례에도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기쁨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돈요. 키가 큰 고로쇠와 동백나무를 함께 식재하는 방안도 고심중입니다.”
범석씨는 학교와 5분 거리에 방을 얻어 집과 학교만 오가며 하루 대부분을 실험실에서 보내고 있다. 지도교수를 도와 다양한 영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비·용돈도 벌고, 경험도 늘려가는 등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사업을 총괄 감독했고, 신안 섬숲 생태복원, 곡성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체지 선

정 등 생태환경 관련 영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논문 준비하면서 틈틈이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 종묘기사, 생물분류기사 등도 준비중이고요. 내후년에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 손해평가사 자격증 등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1년에 두 개씩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는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된 광양시 옥룡사 동백숲을 대상으로 우수목 20개를 선정해 동백나무의 형태적 특성을 연구중이다. 우수 동백나무를 다량의 증식할 계획인데, 이를 석사논문 주제로 삼기로 했다. 전남지역의 동백나무 임지를 다지면서 식재료, 미용, 의약품 등을 개발해 구례와 전남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다.
“구례에는 밤나무가 많아요. 수익도 낮고 노동력도 꽤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를 동백나무로 모두 바꾸고 싶습니다. 동백나무로 구례의 미래를 밝게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고향에 내려와 고향을 위해 일하며 살아갈 청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출신 김승희 시인 ‘만해문학상 본상’

특별상에 김용옥 ‘동경대전’

김승희 시인이 제36회 만해문학상 본상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이며 상금 3000만원.
장비는 30일 한용운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73년 제정한 만해문학상에 김승희 시인을 선정됐다고 밝혔다.
1952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승희는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태양 미사’ 등과 소설집 ‘산타페로 가는 사람’ 등이 있다. 소설시문학상, 올해의 예술상,청마문학상, 고산문학대상 등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17년 제정한 만해문학상 특별상(상금 1000만원)은 도올 김용옥의 ‘동경대전’이 뽑혔다. ‘동경대전’은 동학이 촛불혁명의 오늘에 이르



김승희 시인



도올 김용옥

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한반도 정신사의 뼈대였다는 사실을 밝힌 대작이다.
철학자인 김용옥은 고려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노자가 옳았다’,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아, 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 30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최준영·홍호성)가 최근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더욱 소외되는 이웃을 위해 특별성금을 전달해주어 감사하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기아자동차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



달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남대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 1차 산학협의회 개최



호남대학교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정영기)은 지난 29일 대학 창조관 회의실에서 AI융합대학 지원 사업 1차 산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하인특장, 이노시물레이션, 위고코리아, 다인테크 등 내·외부위원 14명이 참석, AI융합대학 지원사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호남대 제공〉

건보 영광함평지사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황규진·왼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29일 영광군(군수 김준성·가운데)과 함께 ‘벽화그리기 사업 현장’ (묘량 연촌마을, 군남 장고마을)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는 지난 8월 영광군과 ‘벽화그리기 사업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공단 건이강이봉사단, 영광군, 지역거주 예술인(김현우 화가 및 일요화가모임)의 협력으로 2개 마을(묘량 연촌, 군남 장고)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했다.
답사에 동행한 김준성 군수는 벽화 그리기 사업



으로 화사한 마을로 변신해 주민들 호응과 행복 증진의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규진 지사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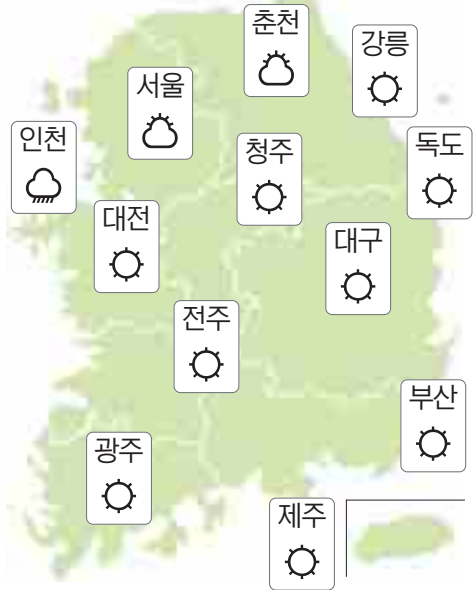
해돋이	06:27	달뜨기	00:29
해질	18:17	달짐	15:29

큰 일교차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8/28	보성	맑음	15/28
목포	맑음	20/26	순천	맑음	18/31
여수	맑음	20/27	영광	맑음	16/27
나주	맑음	17/28	진도	맑음	18/26
완도	맑음	19/28	전주	맑음	17/28
구례	맑음	17/29	군산	맑음	17/26
강진	맑음	18/28	남원	맑음	16/28
해남	맑음	15/27	흑산도	맑음	21/26
장성	맑음	16/2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1.0~2.0	0.5~1.5
	면바다(동)	1.0~2.0	0.5~1.5

◇ 물때

		간조	만조
		04:07 15:00	08:51 22:11
여수		00:15 11:07	05:27 18:07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경고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18/28	18/29	20/29
5(화)	6(수)	7(목)
20/28	19/26	18/26

생활 게시판

화촉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아들 천호군, 김삼경·남희씨 딸 혜인양=10월 3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22 도심공향터 미빌(삼성동 159-6)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홀02-2222-7401-5.
▲정용빈·전지원씨 아들 재호군, 이홍재(광주일보 주필)·김승희씨 딸 보미양=10월 4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 청담 02-512-1000.
▲정인재(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고성희씨 아들 기승군, 차재진·김미례씨 딸 아름양=10월 17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하우스 오브 드메르 1층 지젤을 062-228-0000.

부음

▲고광석씨 별세, 고현승(준 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씨 부친상, 김정호(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장인상-발인 2일(토) 오전 9시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특실 201호 062-227-400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25일 壬午)

☎ 010-9790-8237

36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48년생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니 빨리 정리 할수록 이롭다. 60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72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런 형태로 비화 되리라. 84년생 기묘한 성국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96년생 육식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3, 62

37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역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49년생 국면을 전환시켜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61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73년생 굳이 표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85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97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4, 72

38년생 숨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50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중 집착이 갈 것이다. 6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74년생 드러나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뤄야겠다. 86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형태가 보이리라. 98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97, 85

39년생 단처만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51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63년생 자업자득이요, 사불귀정이나 인과응보 하리라. 75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 87년생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99년생 마무리가 완벽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2, 97

40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도다. 52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나라. 64년생 곧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만 기다려라. 76년생 지진만 할 한다면 큰 지장이 없다. 88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00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해소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78

41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53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65년생 확실하게 구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7년생 소기의 결실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다. 89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01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92

42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54년생 축적 해 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니라. 66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자의 원인이 된다. 78년생 평의만을 도모하다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90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 02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68

4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요 정된다. 55년생 돈은 생기지만 지출되는 액수가 훨씬 더 크다. 67년생 세밀한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망된다. 79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91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03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07, 50

32년생 실제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44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56년생 과신한다면 난관에 봉착한다. 68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80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92년생 맹점을 보인다면 흉의 원인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9, 93

33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45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57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69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차치하지 말라. 81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93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로다.
행운의 숫자 : 18, 66

34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46년생 선택을 잘 못한다면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58년생 걸치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70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82년생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해롭다. 94년생 상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함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09, 83

35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47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서 급반전 될 수도 있다. 59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 시원한 해결을 본다. 71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다. 83년생 부수적인 일이 번거롭게 할 것이다. 95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8, 61